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00-110 주년 표어  
감사의 백년, 소망의 백년  
(데살로니가전서 5:18)

한글판

shinachoch2003@daum.net (담당자)

### <서남지방회> 후쿠오카중앙교회 감사의 헌당식 거행



2015 年 11 月 29 日 (주 일) 오후 4 시 부터 후쿠오카 중앙교회에서는 감사와 감동의 헌당식이 거행되었다.

예배는 김명균담임목사의 사식, 지방회장 주문홍목사가 “기도의 집” (역대하 6:18~21)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본 교회 건축 위원장인 김장수장로로부터 김목사에게 새 교회의 열쇠가 건네지고 하나님께 봉헌되었음이 선언되었다. 계속해서 총간사 김병호목사, 新堀真之목사 (일본 기독교단 큐슈교구 서기), 澤正幸목사 (일본 그리스도교회 큐슈 중회 의장) 이 각각 축사했다.

새 교회는 창립 30 주년 (2015 年) 을 맞이 하였을 때, 신도들은 시련 속에 있었지만, 교회 건축을 위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획하였다. 더불어 이전 교회에서 도보 7 분 정도의 장소에 세워진 새 교회가 완성되기까지는 일본과 한국 교회의 기도와 격려와 귀한 헌금이 있었다.

교회 구조는 사택을 포함하여 3 층으로, 정문 현관은 흰색의 큰 십자가 아래를 통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가치 있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인들이 앉을 의자는 황금색이다.

간단한 건축 경과를 보면, 2006 年 1 월에 교회 건축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11 年 11 월 임시 공동의회에서 건축 용지 구입이 결의되었고, 동년 12 월에 토지 (70 평) 를 구입했다. 그 후, 2013 年 9 월 임시 공동의회에서 건축이 결의되어, 동년 12 월에 건축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어서 2014 年 1 월에 기공식 예배, 2015 年 2 월에 동상식 및 예배, 동년 8 월에 새로운 시공업체와 건축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후 공사가 재개되어 준공과 입당 및 헌당으로 이어졌다.

이 헌당식에는 150 여 명의 내빈들이 참석하여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은혜 넘치는 예배와 교제를 나누었다.

(보고 : 김명균목사)

### <외기협> 제 30 회 외기협 전국협의회

1 月 28 日 (목) 오후 1 시 부터 29 日 (금) 오후 7 시 까지 재일본 한국 YMCA 9 층 홀에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합협의회”(외기협) 주최로 제 30 회 외기협 전국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집회는 “외기협 30 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선교 과제를 정립하자” 는 주제로 열렸는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① 외기협 운동 30 년의 도달점을 확인하고, “일본의 역사 책임” 및 “외국인 주민 기본법” 실현을 위해 협의한다. ② 헤이트 스피치를 비롯하여 인종 차별에 대한 기독교계의 일치 된 의견과 의지를 표명하고,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 의 조기 실현을 위해 협의한다. ③ 동일본 대지진의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협력의 중장기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④ 한국, 일본, 재일 교회의 공동 노력의 도달점을 확인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공동 행동 계획을 작성한다.



개회예배, 기조 제안 후에 첫 번째 전체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서 이철일목사가 “일본 기독교계와 외기협의 30 년” 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한 후, “지금 그리고 미래의 선교 과제” 라는 제목의 특별 심포지엄에서는 吉田真司목사 (일본 침례교 연맹), 香山洋人사제 (일본 성공회) 가 발제한 후에 첫 날을 마쳤다.

다음날은 김신야목사 (요코스카교회) 의 성경 연구를 시작으로, 師岡康子변호사가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이 지향하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총회장 김성제 목사 (나고야교회) 가 “제 3 회 마이너리티 국제회의 후속” 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전체 협의에서는 “2016 년도 계획 / 집회 선언 = 연합 기도” 와 “2016 년도 조직, 회계, 연간 일정” 등을 협의한 후에 외기협 공동 대표 (松浦悟郎) 의 기도로 폐회되었다.

(보고 : 편집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상 회담에 대한 항의 성명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서 4장 1절)

우리 전국 교회 여성 연합회는 1908년에 조선인 청년 유학생들의 모임을 모체로 설립된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 속한 여성 조직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억압, 빈곤과 전후(해방 후)의 혼란 속에서 평화로운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발전을 바라면서 노력해 온 재일 코리아 1세 어머니들의 신앙을 계승받아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에 한일 외상들이 공동 회견을 열고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에 대하여 강한 분노를 금할 길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호소합니다.

1. 금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였고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한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로 사죄를 전하고는 한국 외무부가 일방적인 합의 내용을 피해자 할머니에게 전한 것은 피해자 할머니가 “피해자를 두번 죽인다”고 직전 한 것처럼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행위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10억엔 규모의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며, 그 자금을 일본 정부가 준비한다고 합니다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한국 측 재단에 돈을 거출한다는 것은 배상을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교묘한 바뀌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국가 책임과 사죄, 이에 상응한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지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3. 평화의 비(소녀상)은 국가가 설치한 것이 아니며, 두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해서 민간 단체가 만들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본 정부가 요구할 문제도 아니며, 한국 정부가 대응할 문제도 아닙니다.
4. 금번 합의가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담겨진 내용이라면, 이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역사 교과서에 게재하고, 똑같은 과오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역사 교육에 진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두운 역사의 유산을 통해 배우지 않고, 역사를 부정하는 것 같은 정치가들의 폭언이 없어지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상의 점에서 금번의 “합의”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조국에서 이러한 화해와 참된 해결과는 동떨어진 타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참된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며 치유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2016년 2월 5일  
재일대한기독교교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영숙  
총무 박영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대한 성명

우리는 1980년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구하면서 단 한 사람의 지문 날인 거부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외국인 등록법 개정 운동”을 해결하기 위해 모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개정 운동을 통하여 필연적으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된 지금 우리는 “외국인은 굶어 먹든지 구워 먹든지 우리 마음대로”라는 일본 정부의 혈통주의에 의한 이민족 배제의 논리와 투쟁하면서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며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 운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무 장관은 한국 서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일본 측은 ① 군의 관여를 인정하며, 다수의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을 깊이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아베 내각 총리대신은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 ②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하고, 모든 위안부 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③ 이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不可逆的)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또한 한국 측은 ① 이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확인하며,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 ② 일본 대 노상 앞 소녀상(정식 명칭은 ‘평화의 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향후 양국 모두는 국제 사회에서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발췌)

이웃 나라 동지이면서도 오랫동안 정상 회담을 열지 요인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합의 문서도 없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돌연한 합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그 부실함에 아연실색함과 동시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곧바로 피해 당사자들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번 합의는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지독한 인권 침해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양국 간의 합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미일 3개국에 의한 동아시아 안전 보장 체제 강화를 주목적으로 한 정치 결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전후 일관되게 과거사에 대해 책임 수용을 거부해 온 일본 정부의 자세가 한층 더 선명해졌으며, 아베 신조 총리 개인의 역사 인식과 역사에 대한 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반전시킨 것 같은 밀어붙이기 노선의 내용에 대해 우리는 철회와 새로운 교섭 재개를 요구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 대하여 자신들이 성실하게 역사를 마주 보면서, 잘못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물에 흘러 버리는 식이 아니라, 잘못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면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미 2014년 6월에 8개국의 피해자와 지원자들은 “제 12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회의”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이 학자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모아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공적 자료 529점과 더불어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학순(金學順)씨의 고발 이후 4만세기 동안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범죄자 처벌, 역사 교과서 기술, 추모비와 자료관 설립”을 요구해 온 피해 여성들의 호소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불가역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기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2016년 1월 30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외기협)



### 2016 年 제 30 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선언

2016 年 1 月 28 일부터 29 일까지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 협의회” (이하, 외기협)는 제 30 회 전국 협의회를 동경 재일본 한국 YMCA 에서 개최했습니다. “외기협 30 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선교 과제를 정립하자” 라는 주제로 홋카이도 (北海道) 에서 큐슈 (九州) 까지 각 지역의 외기련 및 외기협에 가맹한 각 교파와 단체 대표자 38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일본 기독교단 히지리가오까 (聖ヶ丘) 교회에서 제 30 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외기협 30 年 간에 걸친 운동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의 일본 사회와 기독교회의 사명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인종 차별 철폐 기본법과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향한 과제를 확인하고, 우리가 요구해 온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에서 작아진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받아 들이는 것에 복음 선교의 사명이 있음을 성경으로부터 들었습니다.

1980 年부터 시작된 지문 날인 거부 운동은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실현을 요구해 나가는 것이 적의 (敵意) 와 증오 (憎惡) 에 의해 침식 된 사회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독교회의 중요한 선교 과제임을 밝혀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은 일본에 있는 여러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협력하는 자리가 되며 동시에 세계 기독교회와 사명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길을 창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보에는 끝이 없으며, 우리는 진심으로 계속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나누는 다문화 공생 사회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 또한 앞으로도 변함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류 (在留) 관리 제도는 외국인 주민의 관리와 배제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 (東北) 의 피재지 (被災地), 특히 후쿠시마 (福島) 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면서 “부흥 (復興)”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문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회 실현을 목표로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계속 요구해 나갑니다.

현재 세계에서는 배타주의의 증가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것은 종래 (從來) 부터 마이너리티에게 동화 (同化) 를 강요해 온 일본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2000 년대 이후 표면화 해 온 인종 증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움직임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4 년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와 인종 차별 철폐위원회로부터 헤이트 스피치 등 “인종주의의 표명, 인종주의적 폭력과 증오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을 요구 받았으며, 2015 年 5 월의 의원 입법으로 “인종 차별 철폐 시책 추진 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인종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한 법안은 일본에서는 처음이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아직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의 조기 실현을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2015 年 11 월에 세계 기독교회의 협력으로 동경에서 개최 된 제 3 회 “마이너리티 문제와 선교 국제 회의” 의 공동 성명을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기독교회 사명으로 사회 안에서 소수자의 소리를 듣고, 함께 걸어가며, 인종주의와 싸우는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네트워크에 연대 해 나갑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과거의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부정하는 흐름이 만들어 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눈을 감는 것은 또다시 전쟁으로 향하는 것이며, 사회 안에서 증오와 배제를 낳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미래를 담아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지속적으로 평화를 요구 해 나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확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 22 장 3 절)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화해와 공생을 요구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선교의 사명으로 대처 해 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6 年 1 月 30 日

- 제 30 회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그리스도인 집회 참가자 일동
-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기독교 연락협의회
- 일본 카톨릭 난민 이주 이동자위원회
-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 외국인 인권위원회
- 재일대한기독교회 사회위원회
- 일본 침례교연맹 일한·재일 연대 특별위원회
- 일본 그리스도교회 인권위원회
- 일본 성공회 관구사무소 총주사 사제 옛사이 矢萩新一
- 일본기독교단 북해교구 평화부문위원회
- 외국인 주민 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관동 그리스도인 연합회
- 외국인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관서 기독교 대표자회의
- 외국인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관서 기독교 연락협의회
- 외국인과의 공생을 실현하는 히로시마 그리스도인 연락협의회

### <찬송가위원회>

## 새 한일찬송가를 발행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016년을 맞이하여 새 한일찬송가를 발행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새 한일찬송가가 출판되기까지는 한국 찬송가공회로부터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서원이 악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기독교단과 복음동맹, 이어서 인쇄를 맡아 준 신생선교단 등의 교단과 단체들이 협력을 해 주셔서 새 한일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새 찬송가는 2006년도에 한국에서 발행됨과 동시에 본 총회 찬송가위원회가 번역과 편집을 시작하여 9년 만에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판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이전의 찬송가위원회 위원님들과 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새 한일찬송가는 한국인이 작사 작곡한 찬송가들이 100여 곡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를 통하여 재일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며,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 한일찬송가를 출판하도록 오랫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신 전국의 목회자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새 한일찬송가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어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과 교회에서는 새 찬송가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와 부흥이 일어나며,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져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위원장 한택주

위원 김필순, 최형철, 이중재, 윤선박, 야마모토카즈미

### 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長野教会」設立広告

この度、下記のとおり、宗教法人法の規定による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長野教会」を設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ので、同法第12条第3項の規定によって広告します。

2016年2月1日

信徒その他利害関係人各位

長野県長野市中御所町四丁目3-1

宗教団体「在日大韓基督教会 長野教会」

代表者 崔 和植

記

- 1 宗教法人「在日大韓基督教会 長野教会」規則案の要旨  
 目的、名称、事務所の所在地、包括団体  
 代表役員・責任役員・同代務者・仮代表役員・仮責任役員に関する呼称・資格・任免・定数・職務権限等  
 議決・監査等の機関に関する事項  
 基本財産等管理処分に関する事項  
 予算・決算・財産に関する事項  
 規則変更・解散・合併に関する事項  
 広告の方法、その他法第12条第1項に規定する事項
- 2 設立の趣旨その他

イエス・キリストの福音を宣べ伝え、礼拝・儀式行事を行い、信徒を教化育成すると共に、聖書の教義をひろめ、人々をして救いの恩寵に与らせ、そのために必要な業務及び事業を行うため

### <總會事務局からのお知らせ>

日本キリスト教会会館の耐震工事に伴い、2015年6月1日より總會事務局とRAIKは臨時的に移転しました。

この度、耐震工事が完了しましたので、2月23日(火)より、日本キリスト教会会館52号に復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 2-3-18

☎ 03-3202-5398

### <總會手帳の訂正>

2016年總會手帳の住所録の中で、東京教会名誉長老「裴得實長老」の姓が間違っていました。正しくは「裴」です。訂正してお詫びいたします。

### 總會奨学生 募集案内

總會神学生として各地方会にて認定され、1年を経過した者が申請できます。書類は總會ホームページ <http://kccj.jp/archives/2941> 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 ・募集人員：5名・支給金額：年額200,000円/一人
- ・支給期間：1年間(受給者は、継続して新たな申請必要)
- ・必要書類：①奨学金申請書 ②在学証明書 ③成績証明書 ④履歴書 ⑤堂会長推薦書 ⑥總會神学校認定書(各地方会試取部) ⑦各地方会会長承認書
- ・書類提出先：總會事務局
- ・締切日：2016年6月30日必着

在日大韓基督教会 総会長・神学考試委員長

在日大韓基督教会

# 新韓日讚頌歌



新韓日讚頌歌  
새 한일찬송가

在日大韓基督教会

新韓日讚頌歌  
新韓日讚頌歌  
新韓日讚頌歌

茶 紺 黒  
色は3色から選べます

■ お問い合わせ ■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事務局  
 2016年2月22日(月)迄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豊南町2-5-5  
 在日大韓基督教会 YMCA 2階  
 TEL 03-5244-5998 FAX 03-5244-5997

2016年2月23日(火)以降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52  
 TEL 03-3202-5398 FAX 03-3202-4977

本体 **2,500円**(税込)  
 ※ 組合内以外の販売は3,000円(税込)です